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7월 20일(일) 제1549호

세 겹줄, 하나님과 이웃과 조화로운 인생

‘러브소나타 시가’ 10월 29~30일 모리야마 시민홀...7월 19~31일까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러브소나타 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QR 코드 참고)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 3일 내에 여권 사본 제출과 접수비를 납부해야 한다. 접수비는 20만 원이다. 잔금은 8월 14일(목)까지 완납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시가는 ‘세 겹줄, 삼포요시(하나님과 이웃과 조화)의 인생’(전 4:12)을 주제로 10월 29일(수)과 30일(목)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막 오른다. 10월 29일(수) 세미나와 가스펠 나이트, 30일 리더십 포럼(한일친선오찬회),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모리야마 시민홀 소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한국측 김요성 목사, 일본측 마츠바라 히로키 목사가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45분 모리야마 시민홀 대홀에서 가스펠 나이트가 열린다. 시모자와 겐지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30일 오전에는 비와코 호텔에서 리더십 포럼(한일친선오찬회)을 개최한다. 한국측 윤형주 장로, 일본측 사카오카 다카시 이사장(사단법인 겨자씨)이 강의한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오후 7시 모리야마 시민홀 대홀에서 이어진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누리 사랑챔버오케스트라, 가수 선예, 소프라노 김영미, 크룩스, 할렐루야 코러스(러브소나타시가 연합성가대) 등이 게스트로



지난해 열린 러브소나타 ‘효고’ 참석자들이 화관을 쓰고 웃고 있다.

출연한다. 집회 실황을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문의: 02-570-7415

계좌번호: 하나은행 228-910010-26305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 참가자)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7월 28일~8월 1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

오는 8월 2일(토)은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 기다. 온누리교회는 7월 28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故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그리는 시간을 보낸다.

추모 기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故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를 상영한다. 설교 주제와 본문은 7월 28일(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요 15:16-25), 29일(화) ‘성령님과 고난’(요 15:26-16:4), 30일(수)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요 16:5-11), 31일(목) ‘진리의 성령’(요 16:12-15), 8월 1일(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요 16:16-32)이다.

8월 1일(금)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는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 중심으로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블러썬멤버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가족대표 하성석 원장 인사,강부호 목사 축도 등이 이어진다.

故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 뜨거운 은혜와 감동 기다립니다!

2025 여름 아웃리치 간증 모집, 동영상 공모전

2025 여름 아웃리치의 그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기다린다. <온누리신문>에서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사역 사진은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일)까지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비공개 지역 등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는 들어가면 안 된다. 팀당 최대 1편 출품할 수 있다.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도 응모할 수 있다. 시상도 한다. 1등 50만 원(2팀), 2등 3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배달앱 상품권), 좋아요상 10만 원, 등등상 5만 원(5팀, 카페 상품권)을 준다.

올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에는 국내 193개 팀 4,340명, 해외 125개 팀 2,028명(7월 16일 기준)이 참가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714연합기도대성회 성료

714연합기도대성회 ‘여호와께 돌아가자’(호 6:1)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며, 기도 운동의 불씨를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장(場)이었다. 지난 7월 14일(월) 한양대학

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막 오른 ‘714연합기도대성회’에는 한국 교회 200개, 선교 단체 26개,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1만 2천여 명(1부 4,413명, 2부 3,958명, 3부 4,096명)이 참석했다<관련 기사 3면>.

“QT하고 빙수 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가 7월 21일(월)부터 8월 16일(토)까지 이어진다.

‘QT하고 빙수먹자’는 차세대들이 방학 동안 QT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차세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차세대들이 방학 동안 총 24번의 QT를 하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QT’도 4번 있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를 선물로 보내준다.

한편 차세대 여름 캠프가 한창이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His Plan’을 주제로 8월 1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분당 및 외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구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하나가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들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한 권의 역사성이 부정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의 율타리 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봐야 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에 역사성이 무너지거나 이 책이 없다면 하나님 구원 역사의 다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의 전쟁’

하나님이 아직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분명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장차 있을 <출애굽>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살게 되면서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고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그 풍요로운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돌아오

는 과정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주목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참고 인내했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멸하라’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리품도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전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 대상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역사상 다시는 반복될 수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심판과 예수님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유형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 친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지는 심판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사람과 사건, 여러 제도,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 절기들을 사용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는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모형’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의 관문이 요단 강인데,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모형’입니다. 사실 요단 강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의 새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변화라는 의미에서 ‘세례의 모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모형은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

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죽어도 부르심에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모세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약속의 땅, 선물의 땅, 정복해야 할 땅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장차 이끌고 들어갈 땅이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첫째,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6절).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대 전에 이미 약속된 땅이고, 그 땅이 많은 자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은 또한 선물의 땅입니다(11절). 그 땅은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만 얻을 수 있는 땅이기에 선물입니다.

셋째, 이 땅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3~4절). 가장 넓은 영토를 의미합니다. 이 땅은 약속을 따라 주시는 선물이며, 동시에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약속을 따라 주시는 땅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친히 싸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선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이 둘이 조화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앞서 싸워 주시고, 그들을 쫓아주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도록 싸워서 얻어야 할 면류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선물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싸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 1장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상 속에 있는 가나안을

당신의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호수아 1:1~9

“말씀 붙잡고 담대히 순종하며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 땅에서도 누릴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정복하기 전에 너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5~7절).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맥락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큰 용기를 내라”는 말씀 이후에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치우치지 마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주어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한 땅이고, 선물로 주신 땅이고, 승리가 보장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 주시는 데 필요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 우상, 유희,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먼저 정복해야지만, 대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대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할 때 적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가 주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라입니다.

“네 평생 너를 당해 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5절).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9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담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임재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함이 강함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소심하고 유약하다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한국 교회의 부르짖음 “여호와께 돌아가자!”

714연합기도대성회 ... 회개 그리고 영적 각성

한국 교회 기도 봉사들의 부르짖음은 회개 그리고 영적 각성을 향하고 있었다. 지난 7월 14일(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714연합기도대성회'는 집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과 열방, 복음적 갱신과 연합, 변화와 평화, 세계 선교 등을 위해 부르짖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자 시너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교회가 다 함께 기도 운동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단은 엄청난 열매가 분명했다. 그 현장에 다녀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전함에 탑승했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 교회 연합기도운동의 새로운 출발이자 한국 교회 연합기도 특공대의 출범식입니다!”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의 선포로 '714연합기도대성회' 막이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교회 200개, 선교 단체 26개,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1만 2천여 명(1부 4413명, 2부 3,958명, 3부 4,096명)이 참석했다.

2025 714기도대성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연합기도회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총 3부로 나눠 진행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도 그리고 회복

1부 기도회에서는 청주상당교회 예배팀이 찬양하고,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가 메시지를,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김용석 목사(서울반석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찬양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

설교는 안광복 목사가 ‘이 땅을 고쳐주소서’ (대하 7:14)를 주제로 했다. 안 목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며,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회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의 길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했다.

1부 기도회는 정명호 목사와 김용석 목사가 인도했다. 정명호 목사는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김용석 목사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기도회를 이끌었다.

민경순 집사(아름다운교회)는 “714연합기도대성회에 참가하면서 기도를 향한 마음의 불이 붙었다”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복한 지

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매주, 매년 함께!

2부에서는 이인호 목사 사회, 선한목자교회 예배팀 찬양, 유기성 목사(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설교, 박성수 목사(부산온누리교회),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기도회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인호 목사는 ‘714기도운동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의 복음적 갱신과 연합, 변화와 평화, 세계 선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 운동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매일, 매주 함께 기도하고, 지역마다 지역 연합 기도모임을 만들어서 매년 714연합기도대성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가자는 “714기도운동의 비전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메시지는 유기성 목사가 ‘보기를 원하나다’ (막 10:46-52)를 주제로 전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기도회는 박성수 목사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 이건호 목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인도했다.

백순이 권사(성동광진공동체)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714연합기도대성회에 참가했다”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결단선언서 낭독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부 기도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예배팀과

청년 합창단이 문을 열었다. 뒤이어 이재훈 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와 714연합기도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714연합기도운동은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로 깨어나 대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며,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교는 최병락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 17:8-16)를 주제로 했다. 최 목사는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며, 효과적”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앞드려 이 땅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3부 기도회는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신사 목사(남군산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가 인도했다. 각각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 ‘한국 사회와 한반도의 평화’,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주제로 기도회를 인도했다.



714연합기도대성회 피날레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결단선언서’ 낭독이 장식했다.

“나는 골방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714연합기도운동

‘714연합기도운동’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국 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연합기도운동이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시작된 첫 집회(2023년 7월 14일)에 한국 교회 성도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 그때부터 지속적인 연합기도운동을 하고 있다.

714연합기도운동에서는 매일 기도제목 공유, 지역 교회 기도모임, 연 1회 연합기도대성회 개최 등을 하고 있다. 다음 714연합기도대성회는 2026년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부차의 한 마을. 두 소년이 구호품으로 받은 통조림을 엄마의 무덤가에 내놓으며 말했다. 두 소년의 엄마는 폭격을 피해 지하실에 숨어 몇 날 며칠을 지내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굶주림 속에 세상을 떠났다. 국경에서 이 소식을 접한 어느 선교사 부부가 두 소년을 찾아갔다. 함께 식사하며 어린이 성경을 전달했고, 2년 동안 그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참혹한 절망의 땅, 눈물의 땅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며 희망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NGO 더멋진세상 협력 선교사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가 그들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그들에게 그들은 희망 그 자체!

우크라이나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전하는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왼쪽에서 첫 번째, 세 번째)와 국경 봉사자들.

“사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마음에 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역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왜 우크라이나인가요?’라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청년 시절, 영락교회에서 봉사하던 두 사람은 선교 비전을 품고 부부가 되었다. 하나님과 선교를 더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떠나 신학을 공부했다. 한국에 돌아와 일산 세광고회 부목사로 사역하며 목회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에 선교의 소명을 잊을 뻔했다. 그러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강사로 초청받았다.

“일주일 동안 강의를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학장님이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이 시작됐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면서 늘 ‘왜 우크라이나일까?’라는 질문을 품었다. 20여 년이 흘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들의 아픔이 제 눈물이 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질문의 답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을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의 언어와 문화, 정서가 한국보다 익숙해졌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교회 개척, 지도자 훈련, 한글 학교, 목상집과 신앙 서적 보급,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등의 사역을 했다. 그들 곁에 문영기 장로와 황명덕 권사 부부(이촌공동체)가 이끄는 ‘선의재단’이 있었다. 문 장로와 황 권사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됐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지금까지 목상집과 신앙 서적 약 19만 권을 우크라이나 곳곳에 보급했다. 때마다 수천 권의 책을 직접 분류하고 발송하는 고된 육체노동의 연속이었지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질 때면 힘이 났다.

“어느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서 1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23세 청년 레오니드가 목상집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읽는 순간 피곤함은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역이 힘든 날이면 ‘주님, 이 한 사람의 변화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힘을 얻습니다.”

난민이면서, 난민을 돕는 사역자

기쁨과 감사, 보람이 가득했던 20년이 잿빛으로 변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에서 교민 철수 명령을 내렸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도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로 피신했지만, 마음은 항상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경으로 수많은 난민이 몰려들었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 국경 근처 도시로 향했다.

자기도 난민이면서 동시에 난민을 돕는 사역자가 된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난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가족과 마을,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했다. 그 무렵, NGO 더멋진세상과의 동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NGO 더멋진세상과 2019년부터 ‘더 멋진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되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될 무렵 전쟁이 터진 것이다.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가 난민들을 위해 지체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중보기도는 물론이고, 후원금과 긴급구호 물품을 빠르게 보냈다. 긴급 구호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우크라이나로 구호 물품을 보낼 통로가 필요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전쟁 피해가 심각했던 부차에 사는 성도 미콜라이, 나타샤 부부에게 연락이 왔다.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희 살아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존한 미콜라이, 나타샤 부부에게 회복할 시간을 가질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주변에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부차에 머물렀다.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기간에 그 부부를 통해 부차와 체르노빌 인근 지역 등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거센 부흥의 불길이 불고 있다. 전쟁 전후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우크라이나 교회 예배 참석률이 17%에서 42%로, 기도 생활은 19%에서 48%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5%에서 26%로 급증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는 10%에서 85%까지 치솟았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일에도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난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먹을 것이나 잠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품고 용기 얻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지금 체르노빌 원전을 포함하는 이반키우 지역의 전쟁고아 77명을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위탁가정의 주거지 마련,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작은 극장, 맘껏 뛰놀 수 있는 풋살 경기장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페도리브카 마을의 오염된 식수 해결, 시도로비치 마을의 선교회관 복구, 모자원 및 조순가정을 위한 센터건립 등 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 많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 주자를 세우는 거룩한 나눔’이라고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은 사랑에 빛진 자들입니다. 이제 그 빛을 갚을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성품이 선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서 자신들을 침공한 러시아, 쇠퇴한 유럽의 교회, 더 나아가 이슬람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연일 포탄이 날아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많은 한국 선교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고 있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 부부도 7월 말 다시 우크라이나로 간다.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은 희망 그 자체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다.

후원계좌: 166101-04-021656 국민은행 김태한(UKR 복음주의신학교)



초등교사가 크리스천 부모님들께

소중한 자녀와 행복한 방학 보내기!

7월이 되면 부모님들은 다가오는 방학이 걱정되지요? ‘아이들과 복작복작,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놀아달라는 그 성화를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방학(放學)은 원래 ‘학업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방학 때 여가저거 놀러 가고, 영화도 보고, 캠프 가고, 결국엔 지루해져서 친구 만나러 다시 학교 가고 싶은 게 방학이었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학원 특강까지 더해져 더욱 바빠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일하셨다면, 요즘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방학 때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해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을 위해 방학 중 학원 개수나 시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5~6시간을 모두 학교에서 똑같은 걸 하며 보내기에 아이 간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학은 한 달가량, 하루 모든 시간을 학생마다 다르게 보내니 돌아와서의 표정이나 추억이 제각각입니다. 정말 잘 쉬고 다양한 체험과 여행 등으로 활기가 가득 차서 온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많아진 학원과 숙제, 또는 영상과 게임에만 노출되어 축 늘어져서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방학이 초등 시절만 12번 쌓이면 아이들 개인차가 더욱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는 방학 기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하시면 좋

습니다.

먼저 방학 때는 안과와 치과에 들러서 아이 시력이나 치아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악화합니다. 충치도 그렇습니다. 덧붙여 무더운 여름 방학 동안 식사도, 영양제도 잘 챙겨주시면서 건강을 충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반 아이 중 한 명이 가족 여행을 다녀와서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다고 해서 보건실에

나 교통 박물관, 유적지부터 한국은행에서 하는 청소년 경제교육, 우유 공장이나 과자 공장 체험, 영어 캠프, 과학 캠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걸 좋아해서 체험은 무엇이든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에게 부족한 걸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잘하는 것을 더 많이 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다 보면 자

아이라면 아기 때부터의 사진들을 돌아보며 ‘소중한 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방학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잠시만 일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 캠프’에 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녀에게 어린 시절 교회와 믿음, 믿음의 친구들이 참 중요하죠. 저도 중학교부터 사귄 오랜 교회 친구들과 아직도 만나고 연락하고 기도 하거든요. 여름 캠프에 앞서 목회자들과 교사 한분 한분을 위해, 참석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 또 학 부모님들의 작은 바람들이 민원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긴 방학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고 보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복작대고 살 맞대는 때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녀,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채워보세요.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아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긴 방학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채워보세요.”

다녀왔는데도 눈에 힘이 없더라고요. 결국, 조퇴시키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여행 후라 식사와 영양제를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이가 너무 활기차고 눈도 초롱초롱해져서 왔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나 물으니 아이는 “저 어제 병원은 안 갔고요, 삼계탕 먹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한 번만으로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갈만한 곳을 찾아보는 거죠. 아이들이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 관련된 역사

고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쪽의 교육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직장을 방문해서 실제 부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휴일에 데려가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 휴가 기간을 맞춰서 피서도 잘 다녀오시고요. 여행은 꼭 해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계획하고, 낯선 곳에 가고, 새롭게 하는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겐 도전과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는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

7월 21일~27일
〈에스겔〉 3:1~7:27



묵상포인트 1: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고 백성을 지켜 내는 역할을 한다. 민족의 패망 위기 가운데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에스겔이 감당하게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이시니, 에스겔의 입에 꿀처럼 달았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백성의 죄악을 깨우치게 하신다. 에스겔은 대상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그에게서 찾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말 못 하는 자로 만드시니, 그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 입이 열려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말씀만이 아닌 시각적 자료로도 알리신다. 완고한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에스겔은 자신의 몸으로 혹은 다양한 행동으로 하나님 뜻을 전한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들과 그 의미에 대해 묵상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관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알리는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남 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정해진 양의 적은 음식과 물을 마시라고 하시며 소똥으로 불 피운 떡(餅)을 먹으라고 하신다. 또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사르고 칼로 치며 바람에 흩날리라고 하신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 예루살렘은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망하고, 이방인에게 수치와 조롱거리와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묵상포인트 3: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우상 숭배는 복의 근원과 단절되고 패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로 인해 장차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임하는지 묵상하고 반면 교사로 삼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고, 살아남은 자는 이방인에게 사로잡힐 것이며,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끝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다. 사람은 죄악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므로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환난과 소문이 더하여질 때 묵시와 율법과 책략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실 때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깨달을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을 전하기에 힘쓰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우상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대상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는지 살피고 제거하자.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한다. 삶 속에서 평강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자.

/〈생명의 삶〉편집부

다큐 영화 ‘무명(無名)’ 관객 6만 명 돌파

1:1 결연 복음 릴레이 캠페인 실시

CGN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누적 관객이 벌써 6만 명을 돌파했다(7월 14일 기준). 이에 CGN은 CGN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더 많은 사람이 관람하도록 돕는 1:1 결연 복음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한다. 후원금 1만 원을 후원하면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 한인 이주민 성도들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무명(無名)’을 관람할 수 있다.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입금자명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야 한다(예: 온누리 910128). 더 자세한 내용은 CGN 홈페이지(www.cgncorea.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은 일제강점기 고통 가운데 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의 삶을 담았



CGN 기독교 다큐멘터리영화 ‘무명(無名)’ 스틸 사진.

다.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하루 2회 상영한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영화관을 단체 대관하면 러닝타임 90분 외에 30분 추가시간을 제공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28-910021-96104 ((제)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양재 이웃사랑팀이 삼계탕에 담아 전한 진심

이영숙 어르신(우면주공경로당)이 모처럼 머리를 곱게 빗고,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양재온누리교회로 향했다.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이 지난 7월 18일(금) ‘초복 맞이 어르신 영양삼계탕 나눔 잔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양재 1동 주민센터, 지역 봉사자들도 힘을 보탰다.

김진옥 권사(서초B공동체)가 사

회를 본 이날 행사는 강부호 목사의 환영 인사, 양재 1동 동장과 서초구의회 이형준 의원의 감사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맛도 좋고, 영양 가득한 삼계탕에 담아 전한 진심이 어르신들을 사로잡았다. 이영숙 어르신이 양재 이웃사랑팀에게 인사했다.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레바논 난민 아동 지원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7월부터 두 달 동안 ‘레바논 난민 아동 지원캠페인’을 한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아동 60명에게 학용품 세트(책가방, 노트, 필통,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등)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 아동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조이폴센

터’ 소속 학생들이다.

NGO 더멋진세상 ‘레바논 난민 아동 지원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하면 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일대일 양육자반 Wake-up 참가자 모집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

일대일 양육자반 Wake-up(이하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이스라엘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9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

료. 일대일 양육자반 Wake-up 과정은 양육 미착수, 장기 휴면 또는 자신감이 부족한 양육자, 양육자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성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의: 02-570-7349

/ 박지혜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7월 25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

2025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이하 ‘2025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2025 어!벤처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 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홈페이지(www.aventures.kr)에서 하면 된다.

이번 어!벤처스에서 우승 기업에게는 공동주관기관인 ‘씨엔티테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기회와 부상을 준다. 부상은 3천만 원 상당의 상금(그랑프리 1천만 원),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전액 장학금 등이다. 그랑프리 1개 팀에게는 미국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청춘클래스 13기 참가자 모집

8월 3일까지 네이버 카페에서 참가신청

청춘클래스 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청춘클래스 13기는 8월 30일(토)과 9월 6일(토) 오후 12시 30분부터 9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총 60명(남녀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8월 3일(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8월 11일(월) 전후로

개별 연락한다. 회비는 7만 원(양일 식식 포함).

청춘클래스 13기 1주차에는 최성민 목사(온누리교회 대학청년본부장)가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한다. 2주차에는 청춘클래스에서 만나 결혼한 선배들과 토크쇼를 한다. 참가자들이 3:3 대화와 1:1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코너도 있다.

/ 심예은 기자 y22un@onnuri.org



자립준비청년 100명에게 반찬 나눔

온누리울타리, 매월 첫주 화요일 나눔 행사

사회선교부 소속 온누리울타리에서 자립준비청년 100명에게 반찬을 나눠줬다. 지난 7월 7일(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반찬만들기 행사’가 만나하우스에서 열렸다. 온누리울타리 소속 봉사자 10여 명이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했다. 온누리울타리에서는 매월 첫 주 화요일에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있다.

이수정 총무(온누리울타리)는 “매월 이어지는 행사에 많은 봉사자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작은 나눔이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6479-0885

/ 홍하영 기자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 온라인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진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가 강의한다. 수강신청

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7월 30일(수)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 준다. 교재 〈중고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문의: 02-2078-3265

본부 13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9월 3일~10월 1일 매주 수

본부 138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9월 3일(수)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https://mo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 박지혜 기자

본부 17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6일~8월 23일 매주 토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7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2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정체성과 사명의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9023-5400

/ 박지혜 기자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해외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옥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앨버틴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슬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0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 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청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 -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김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필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옥환 노규석

◆ 부목사(주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길 김현웅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성진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웅 김태완 김한균
김현실 김홍주 노지형 노혜태

럼분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은A
박성은B 박성현 박전중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현삼 배성우
변대섭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성 신영훈 신대중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라 송두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규 유진아 유현목 윤라미
윤현규 이현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진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운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전민기 최대훈 최성규 최희중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현중
추대식 카와라 요시카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해틀드킴

허원희 황문규 황신연
김한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송애관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주하늘 최강호 홍근영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환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견 목사

고백서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정모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윤
배승현 백인선 비 켈 서경남

서영철 생애애 양현우 유엘베이
에릭 마이클 스톨스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순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정진도 제인랑 존컬어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찬 권애람 권병화

권형성 김기희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병초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광
김태환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화목 나가노

마사토 남 헤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미즈윌 박 권

박마에 박 성 박유진 박의력
박종일 박진미 방연자 서은규

배윤지 배훈기 배용성 유의준
서해진 손위결 송영호 신호철

심은섭 안무택 오성광 오성광
오진우 오혜원 오진우 유석현

유석우 윤현주 윤영갑 윤영오
윤현진 이경찬 이근수 이광형

이기준 이길수 이동희 이두술
이민식 이우용 이백용 이상기

이성익 이상옥 이영길 이영제
이영철 이웅경 이우하 이우곤

이태민 이택민 배기영 배병태
이재준 이재호 이경진 이재길

이중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하영 이화영 이현조 이희주

이희주 임관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영준 장우영

장정아 장한배 정강부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성기 정순탁 정영태 정진호
정준우 정과홍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정구 조창진

권용한

김관식 김남식 김남철 김명철
김성섭 김성진 김성수 김수광

김성숙 김성국 김성진 김수영
김수영 김준홍 김진국 김현철

김원규 김원국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김원경 김원성 김원중 김원철

차준규 최득린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최정수

이규현 이봉의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남식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동욱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이상도

다큐영화 <무명 無名> 1:1 결연 캠페인

무명 無名의 복음 릴레이

〈무명 無名〉 후원으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세요.

CGN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한 무명(無名)의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1:1 결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만원 후원으로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등
척박한 환경의 성도들에게 영화 <무명 無名>을 선물해 주세요.

영화 <무명 無名>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1만원 당 한 분에게
영화 <무명 無名>을
선물하세요.



CGN이 영화관으로
관람대상자를
초대합니다.



영화 예배로
<무명 無名>의
감동과 은혜를 나눕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228-910021-96104 (재)온누리선교재단

* 입금 시 입금자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주세요. 예시) 홍길동 910128

*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02-796-2243으로 연락주세요.

